

목어

자오푸츠 거사

중국의 문화혁명때 문화재를 자본주의의 병폐로 오인한 홍위병들의 파괴행위가 있었다. 그 혼란속에서도 지금의 중국불교가 있게 한 공로자인 자오푸츠(趙朴初) 前 중국불교협회 회장의 불교 문화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고 한다.



홍위병들이 곳곳에 있는 불교문화재들을 파괴할 때 급히 자신의 낙관이 찍인 글을 써 보내 구해낸 일이며, 한중일 3국의 불교가 연대해서 극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평화와 환경보존 등 각국의 공동 관심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해결하고자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를 창설해 황금유대를 구축한 일 등은 모두 그의 불교 사랑에서 배어 나온 업적이다.

지금도 중국 곳곳의 절에 자오푸츠의 글이 걸려 있어서 그의 진한 불교 사랑을 느낄 수 있다. 마오쩌둥의 어록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한 바 있는 방원성(方元成)선생은 자오푸츠의 덕망을 설명하면서 어록중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뜯어본 천절히 답해주었다고 한다. 또 마오쩌둥의 시문(詩文)에서 잘못된 부분은 골라내 바로 잡아주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중국 승려들이 전통적 분위기에서 불교를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불학원(佛學院)을 세워 한 곳에 수백명씩의 승려가 전통불교와 현대불교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배려한 것도 그의 큰 업적이다.

이제 그가 간지도 1년반이 지나고, 중국불교의 새 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작년 5월에 작고하여 새 회장을 뽑는 일이 작년 8월에서 올 4월로, 다시 올 가을에서 내년 봄쯤으로 연기되고 있는 것은 참다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 중국불교계, 정부, 13억 중국인을 교화하는 25만명의 승려, 1억3천의 불교신자들이 함께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한 수순이라 믿고 싶다.

제2의 자오푸츠가 하루빨리 등장해서 중국 뿐 아니라 3국의 불교가 같이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낼 것을 기원해 본다.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

“완벽한 해체가 1차 목표”

인사

미륵사 석탑 해체 보수공사 이끌 문화재연구원 김봉건 미술공예실장

“미륵사터 석탑 해체보수는 우리나라 석조 문화재 보존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전북 익산 미륵사터 석탑(국보 11호) 해체 보수 작업의 실질적인 책임을 맡은 김봉건(47)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장은 “30년 문화재 보수 경험이 응축된, 문화재 보수 사상 최대의 역사(役事)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륵사터 석탑 해체 보수는 준비 기간 포함 보수 기간만 10년(1998~2007)에, 총 8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미륵사터 석탑은 7세기 초 백제 무왕(600~641)때 조성된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의 석탑. 6층 지붕돌(옥개석) 일부까지 남아있는 이 탑은 1915년 일본인들이 시멘트로 보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석재의 강도가 약화되고 시멘트에 금이 가 군데



군데 부서지면서 붕괴위험의 도가 높아 1998년 해체 보수가 결정됐다. 현재 탑 주변을 거푸집으로 감싸고 5층 규모의 가설 덧집을 세워 탑을 완전히 감쌌다. 목조 건축물이 아닌 석탑을 해체하면서 가설 덧집을 세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체 역시 발굴듯 한층층 뜯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장 어려운 점은 시멘트를 안전하게 떼어내는 작업이다. 김 실장은 “기계를 사용하다 충격이 가면 부재가 손상되거나 탑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정교로 쪼아가면서 떼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떼어낸 부재들은 즉시 실측과 함께 과학적 보존처리, 강도 보강 등의 작업에 들어간다. 해체에만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레이저 초음파진단기, 3차원 컴퓨터 영상 처리 장치 등 최첨단장비도 필수다.

80억 예산-6년여 작업

문화재 보수 최대 役事

미륵사터 석탑 해체보수는 “1915년 당시로서는 최첨단 소재인 시멘트를 사용해 보수했던 일본인들도 하지 못했던 석탑의 원형을 우리 손으로 찾는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생각이다. 김 실장은 “미륵사터 석탑은 재료만 석재일 뿐 목탑 양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건축 양식을 본따 건축에 쓰이는 부재 하나하나를 따로



가장 어려운 작업은

일제의 시멘트 떼내기

만들어 목탑을 조성한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백제 건축 양식 복원의 단초를 제공할 부재의 발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역사(役事)의 중요성은 기술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김 실장은 “일본의 경우 건축물 하나를 복원하는데 20년 넘게 걸린 것도 있다. 원형대로 복원할 것이냐 현 상태대로 복원할 것이냐를 놓고 치열하게 대

립했기 때문이다. 미륵사터 석탑 복원을 놓고 우리도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남아 있는 6층까지만 복원할 것이냐, 원형을 추경해서 복원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이번 해체 보수가 문화재 복원에 대한 우리만의 철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우선은 완벽한 해체가 목표다.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떼어낸 부재들의 보관 장소 확보 등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거쳐 본격적인 해체는 내년부터 들어간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a.com

◇미륵사터 석탑(국보 11호) 해체 보수 작업을 일리는 고유제에 이어 드잡이공 총정수 씨 등이 6층 지붕돌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들어서 옮기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신도교육 성과 일으려면 ...

사찰 자발참여에 달렸다

교육공간 확보·교재 다양화 '숙제'

신도교육 중 사실상의 핵심인 기본교육은 과연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신도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은 고학력자 신도들이 늘어나고 불자들의 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사찰들이 적극적인 관심 갖는다면 신도교육 정착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스님과 신도들이 신도교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도 포교원으로서 희망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35개 사찰에서 기본교육을 시범 실시한 결과, 이들 중 일부 사찰은 포교원의 이런 기대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 보였다. 경북 봉화 죽서사는 교육할 만한 장소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교육도 빠지지 않고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영

주 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합동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 군산 은적사는 교육과목에 경전공부 및 참선실수까지 포함시켰고, 해인사는 3개월 동안 자원봉사 활동을 의무화하는 한편, 수행 프로그램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포교원의 고민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미 1년여 전부터 신도교육이 종법에 의해 시행된다는 사실을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당수 사찰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원은 총무원과 협의해 기본교육을 이행할 만한 장소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교육도 빠지지 않고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영

이 종법(신도법)이 정한 의무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따로 없는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공간 확보 및 교육교재 다양화, 교육전문가 양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다. 우선 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의 소규모 사찰의 경우 교육공간 확보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지역의 사찰들이 연합해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하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신도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마당에 사찰간의 유기적인 관계까지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재 다양화와 교육전문가 양성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찰들의 요구사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 기본교재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디오 등 부교재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스님과 포교사 등 일선에서 신도 기본교육을 담당할 교육자들에게 대한 사전교육 및 재교육도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수행풍토 조성 '효자 노릇'

조계종 첫 3급 승가고시 '의미'

이번에 직지사에서 실시된 3급 승가고시 및 법제품서식은 1962년 조계종 출범이후 처음 시행됐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 승가교육체계의 승려위계 확립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단의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된다.

3급 승가고시는 당초 '첫 실시'라는 의미를 두었던 것과는 달리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다. 법랍 10년 이상인 3급 승가고시 대상자 스님의 70%가 넘는 366명이 자발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이는 승가고시 체계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응시원서 접수자 중 수행이력이 부족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42명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킴으로써 향후 3급 승가고시 대상자들에게 고시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재촉되는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두었다.

다만 올해 3급 승가고시는 '첫 실시'

라는 점을 감안해 필답고사가 아닌, 고시안형 태로 치러지면서 승려 자질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3급 승가고시의 정착 여부는 95년 1월 이후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고시안형과 필답고시를 병행해 시행되는 2008년도 제2차 3급 승가고시에서 판가를 날 것으로 보인다.

3급 승가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종법에 따라 법계를 품서한 것은 승가고시제도와 연계해 승가위계와 위의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종단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제품서식은 향후 법제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승단 위계는 물론 수행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단내에서는 95년 교육원 출범 이후 5급(사미니계 수계 자격고시) 및 4급(주계 수계 자격고시)고시가 정착되자, 승가고시 제도와 함께 법제제도 가 시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영우 기자

태고 보우국사 탄신 700주년 및 중흥사 복원·중창불사추진 기념 학술세미나 『중흥사의 역사와 미래』

중흥사는 통일신라 말 도선국사의 풍수사상, 고려초기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고사상에 의거하여 창건되었습니다. 고려 말 태고 보우국사가 주석함에 이르러서 중흥사 위상은 한층 고양되었습니다. 더욱이 태고 보우국사는 중흥사에 주석하면서 선풍을 크게 떨쳤을 뿐만 아니라 원융불교를 제창하였습니다. 그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승군 판도 중심의 사찰로서 그 위세는 더욱 고양되었습니다. 이처럼 중흥사는 태고 보우국사와 원융사상의 흔적이 진하게 배어 있는 도량이며서도 호국불교의 정신이 숨쉬던 사찰이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비운의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고, 일제의 가혹한 사찰정책에 의해 복원을 기하려는 수많은 노력은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시월 인연을 맞이하여, 보우국사 탄신 700주년과 중흥사의 복원 중창불사 추진을 기념하여 『중흥사의 역사와 미래』라는 대주제에 학술세미나를 거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뜻 깊은 대작불사의 회향에 두루 동참하시길 발원하옵니다.

- 세부주제 및 발표자: 태고보우국사의 상애와 사상 : 유영숙 교수(서울교대) / 조선 후기 승군체제와 중흥사 : 윤용출 교수(부산대) / 북한산성 지표조사 : 진현준 박사(서울대박물관) / 북한산 중흥사지 발굴보고 : 김광식 교수(홍익대) / 근대불교와 중흥사 : 김광식 박사(대각사상연구원)
토론 및 논평자: 이광래 교수(충남대, 토론 사회) / 권기종 교수(동국대) / 이병희 교수(한국교원대) / 임효제 교수(서울대) / 장홍식 교수(동국대) / 임예봉 스님(근현대불교연구원)

曹溪宗刹 北漢山 重興寺 復元·重創 佛事 推進委員會 總裁 宋西庵·金靑岩 推進委員會委員長 黃壽泳 北漢山重興寺 住持 明道覺



1904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중흥사 전경

- 日時·場所 및 交通案内
■ 日時: 2001. 11. 17 (土曜日) 午後 1時 ~ 5時 30分
■ 電話: 02-355-4488, 357-7744, 011-521-4487
■ 場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259, 중흥사
■ 交通: 電鐵 3호선 지축역 하차, 중흥사 안내차량, 노적사 봉고차 이용